

신명기의 구조와 신명기 법전

* 본 정리는 왕대일 박사의 "신명기연구"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각주가 없는 한, 모든 내용은 왕대일의 강의 내용임을 밝히며, 강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설명과 이해는 각주에서 그 출처를 밝힌다. 특별히 출처를 밝히지 않은 학술적인 논거는 본 강의의 주교재인 "다시 읽는 토라"에서 기인한 것임을 밝힌다.

쉐마의 구조

왕대일은 "쉐마" שמע로 불리는 신 6:4-9의 본문은 6:4-5과 6:6-9로 나뉘어지며, 6:6-9은 6:4-5를 보충하여 설명하여주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특별히 왕대일은 쉐마의 전반부인 6:4-5는 아래와 같은 구조로 다시 나눌 수 있다:

A. 명령문 v.4a (2nd. sg. imp)

B. 평서문 v.4b (명사문장)

A' 명령문 v.5 (2nd. sg. Qal. וקול)

쉐마의 신학(1) 보는 종교에서 듣는 종교로

왕대일은 שמע라는 동사로 시작하는 이 단락의 신명기적인 의도는 보는 종교에서 듣는 종교로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들으라" שמע는 것이다. 그리고 이 쉐마를 듣는 청중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이다.

왕대일의 이 견해는 매우 타당하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단 한번도 하나님(יהוה)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은 호렙산의 구름 가운데 불로 나타났을 뿐,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음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모세는 한번도 본적이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음성만으로 들었다고 말한다.

쉐마의 신학(2) Mono Yahwism

왕대일은 신 6:4a를 "יהוה, 우리의 하나님은 한분이다"라고 읽기를 제안한다. 이것은 יהוה אלהינו를 동격으로 해석한 것이다. 왕대일은 אל 또는 אלהים을 신을 가리키는 보통명사로, 그리고 יהוה는 고유명사로 이해한다. 또, אחד를 "한분"으로 이해한다.¹⁾

1 왕대일은 יהוה אלהינו를 "יהוה는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도 해석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비록 발제물에서 밝힌대로, 바인펠트는 יהוה אלהינו가 명사문장으로 해석한 경우가 없다고 주장한다. 왕대일이 만약 이 바인펠트의 견해를 수용한 것이라면, 수 24:17a는 יהוה אלהינו가 명사문장으로 사용된다는 예를 보여주는 좋은 문장이다.

(수 24:17a) בַּיְהוָה אֱלֹהֵינוּ הוּא הַמַּעֲלֶה אֶתְנוּ וְאֶת־אֲבוֹתֵינוּ מֵאֶרֶץ מִצְרַיִם מִבְּיַת עַבְדִּים.

마소라본문의 액센트(טעמים)은 יהוה אלהינו가 하나의 의미단락인 24:17a 로 나뉘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 הוא는 새로운 문장의 시작인 주어이다. 만약 יהוה אלהינו가 명사문장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하나님"이라는 동격 명사구라면, הוא가 동격의 הוא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뒤에는 또 다른 명사가 와야한다. 그러나 여호수아 24:17에서는 הוא다음에 명사가 오지 않고, על동사의 הפעיל형이 왔다. 그러므로, 24:17a 는 "יהוה는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יהוה는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왕대일은 신명기의 신학을 설명하면서, אל이라고 불리는 대상은 이곳 저곳에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אל이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 יהוה라는 것이 쉘마의 신학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랑해야하는 대상 역시, יהוה라는 것이다.

그러나, 왕대일은 이 쉘마가 Monotheism이나 Monolatry를 말하고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증거로 Kuntillet Ajrud의 벽화를 제시한다. Kuntillet Ajrud에서 발견된 벽화에서는 사마리아의 יהוה, 그리고 테만의 יהוה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Poly-Yahwism).²⁾ 왕대일은 이것이 이곳 저곳에 יהוה로 불리는 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사랑해야하는 יהוה는 단 한분, 이스라엘 백성의 יהוה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적인 교육과 타이름, 바로 쉘마라고 설명한다 (Mono Yahwism). 이러한 측면에서 신명기는 יהוה이외의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Monotheism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Monolatry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쉘마에서는 אחד יהוה를 이야기하고 있지, יהוה הוא אלהים אין עוד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왕대일은 쉘마는 신명기의 신학이 Monolatry로 가는 길목에 서있다고 설명한다.

Excursus 1. Suspended letter

왕대일은 마소라본문의 쉘마의 앞단어와 맨끝단어가 다른 글자에 비해서 큰 모양을 가지고 이는 형태를 Suspended letter라고 설명하였다: שמע ישראל יהוה אלהינו יהוה אחד 그러나, 이 설명은 고쳐져야한다. Suspended letter(Litterae Suspensae)는 Haplography(두번 반복되는 같은 자음을 필사자의 실수로 한번만 기록한 철자탈락 오류)에 의해서 생긴 철자탈락을 고치기 위해서 원래 본문위에 필사자가 바른 표기로 첨가해 놓거나, 성서안에서의 이전의 필사자가 오류를 범한 본문에 후대의 필사자가 고치기 위해서 철자를 첨가해놓은 위첨자(superscription)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다. 예를 들어서 겔 7:21-22에서 21절은 חללה로 끝나고, 22절은 והסבותי로 시작한다. וה로 끝나는 21절과 וה로 시작되는 22절을 기록한 필사자는 실수로 21절의 וה를 빠뜨렸다. 그래서 21절의 맨 마지막은 חללה라는 정체불명의 히브리어가 생겨났다. 그래서 후대의 몇몇 필사자는 이 오류를 고치기 위해서 חללוה로 고쳤다. 또 사 18:30에는 מישה로 표기되어 있다. 왜냐하면,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은 요나단이라는 아들을 둔 적이 없기 때문이다 (Exod 6:17; Num 3:18, 21; 1 Chr 6:2).

그러면, שמע ישראל יהוה אלהינו יהוה אחד는 무엇인가? 토브 Emmanuel Tov는 본문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특별한 기록의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Special letters). 쉘마의 시작과 같이 큰 글자로 표기된 부분인 쉘마의 본문인 6:4 이외에도, 창 1:1; 전 12:13; 레 11:42; 13:33에서도 나타난다.³⁾

Excursus 2. Mono Yahwism 그리고 Kuntillet Ajrud

쿤틸렛 아즈루드 Kuntillet Ajrud는 가테스바네아에서 남쪽으로 50Km에 시나이 반도로 성지순례를 가던 옛길에 위치한 도시로 이곳에서는 벽에 새겨진 Inscription들과 토기와 돌로 만들어진 용기에 새겨진 Inscription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 지역은 남왕국과 북왕국의 특징이 모두 나타나는 독특한 지역이면서, 동시에 쿤틸렛 아즈루드가 있는 네게브지역의 독특한 토기와 문화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있어서, 쿤틸렛 아즈루드가 네게브지역의 거주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도시가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홍해의 항구 예시온게벨이나, 시나이반도로 내려가는 성지순례객들이 주를 이루던 도시로 알려졌다.⁴⁾

2 왕대일은 이것을 Poly Yahwism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마도 Mono Yahwism에 대한 반대표현으로 사용한 듯하다. 그러나, 왕대일의 견해가 Kuntillet Ajrud의 Inscription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이것은 Poly Yahwism이 아니라, Pagan Yahwism으로 불려야마땅하다. 왕대일이 밝힌다바대로, שמרו והיהוה והתמונה יהוה이 나오는 것이 맞지만, 더불어 לאשרת도 함께 나오기 때문이다. 아세라에 대한 찬양역시 Poly Yahwism의 분류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다 (Excursus 2 참조). 그러므로 나는 스티븐 Ephraim Stern이 말한, Pagan-Yahwism을 더 선호한다.

3 Emanuel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2001), 57-58, 237

4 Amihai Mazar,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10,000-586BCE* (New York: Doubleday, 1990), 446-50.

쿤틸렛 아즈루드에서 발견된 토기에는 "사마리아의 יהוה와 (그의) 아세라"라는 귀절과 "내가 테만의 יהוה와 (그의) 아세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는 귀절이 있다. 물론, 여기에서 "(그의) 아세라"라는 표현에는 이것이 고유명사인 지 보통명사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으나,⁵⁾ יהוה를 말할 때에, "יהוה שמרון"과 "יהוה התמן"를 언급한 것이 눈에 띈다. 사마리아의 יהוה는 북왕국의 יהוה를 가리키는 말이고, 테만의 יהוה는 쿤틸렛 아즈루드인근 지역, 남쪽 땅의 יהוה를 지칭하는 말임에 틀림이 없다. "יהוה שמרון"과 "יהוה התמן"라는 표현은 고대근동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표현방법으로 특정지역 또는 나라의 신을 가리키는 표현방법이다. 이같은 표현방법은 그것이 지역의 성소, 내지는 지역의 성전과 연결되어서 그 지역의 성소나 성전에서 섬기는 신의 이름을 차용하는 것이다. 성서에서도 이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 삼하 15:7-8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압살롬은 다윗에서 헤브론에서 יהוה께 서원한 것(또는, 헤브론의 יהוה께 서원한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그리고 יהוה ירושלם (예루살렘의 יהוה)가 자신을 돌아오게한다면, 그 יהוה를 섬기겠다고 한다. 이러한 예들은 비록 지방성소에서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성소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쿤틸렛 아즈루드에서 보여주듯이, 각각의 지방성소나 성전에 각각의 יהוה가 있다는 것과 그 יהוה가 아내를 두고있다는 것, יהוה를 상징하는 특별한 모양의 형상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Pagan Yahwism이며, 신명기는 쉘마를 통해서 Pagan Yahwism을 거부하고, Mono Yahwism을 선언하는 것이다.⁶⁾

5 Taylor, J. Glen. Was Yhaweheh Worshipped as the Sun? *Biblical Archaeology Review* 20[3]. 1994.

6 Stern, Ephraim. Pagan Yahwism: The Folk Religion of Ancient Israel. *Biblical Archaeology Review* 27[3]. 2001.